

유가상승으로 그 어느때보다 ESCO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ESCO 조찬간담회 개최

협회입장 · ESCO의 역할 확대에 따른 지원제도 개정 필요
공단입장 · ESCO 집중 홍보 붐 조성 노력

취재 및 정리 ■ 이선호 기자



일 시 : 1999년 11월 24일(수) 오전 07:30~09:30
 장 소 :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
 참석자 : 최석곤 회장, 오자현 부회장 및 정회원사 15개사,
 특별회원사 4개사, 이명용 에너지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및
 류기준 ESCO팀장
 사 회 : 남장현 사무국장

중소회원사 활성화 대책으
 로 특별회원사와 연계한 컨소
 시엄 구성 등도 검토하도록 하
 겠습니다. 협회를 활성화시키
 기 위한 대책으로는 회원사간
 정보 및 기술교류를 위해 정보
 지를 발행할 예정이며, 지방자
 치단체에 대한 진단은 각 회원
 사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말
 아 비용을 경감시키는 방향으
 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
 어 필요 기자재를 공동으로 구
 입하여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단법인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회장 최석곤)는 지난 달 24일 회원사간의 상호 의
 견교환과 인사를 겸해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임시총회를 대신해 열린 것으로 협회 사무국은 그간의 주요활동과
 방향을 설명하고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새로 정회원사에 가입한 (주)BTI(대표 이철재)와 특별회원사에 가입한 (주)혜성
 라이팅(대표 장기원), (주)연방기연(대표 김진철)사가 소개됐다. 이로써 협회는 설립 6개
 월만에 정회원사 22개사, 특별회원사 6개사로 총 28개사가 됐다.



협회의 최석곤 회장은 "IMF 이
 후 우리나라 경제가 9%대의 성장
 세 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유가
 인상 등의 악재로 인하여 ESCO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
 지고 있다"며 "새로운 천 년을 맞아
 정부시책에도 도움되고 ESCO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자"고 말했다.

참석한 회원사 대표들은 각사별
 로 ESCO사업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관계기관에 ESCO 사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이명용 사업본부장과 류기준 ESCO팀장이
 참석하여 ESCO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명용 본부장은 "최근 공단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ESCO시범사업」에
 일부 ESCO업체가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사례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본부장은 공단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개별접촉기업은 강력한 제재
 를 받게될 것임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는 또 "최근 공단도 ESCO사업의 붐을 형성시키기 위해 각종 홍보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국가에너지 정책에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개별 ESCO들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날 간담회 참석자들의 주요발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최석곤 회장 : 지난 4월30일 협회가 만들어져 지금은 모양새를 갖춰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9% 정도의 성장세로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 유가상승 등의 복병을 맞아 정부도 우리 ESCO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새로운 천 년을 맞아 정부정책에도 도움되고 우리 ESCO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토론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재옥 사업본부장(BTI) : 저희 BTI는 모터 절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내년도에는 중국시장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ESCO협회에 가입함으로써 국내 에너지업계에의 발전에 다소나마 기여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훈 에너지사업단장(연방기연) : 연방기연은 작지만 알찬 회사입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아니지만 에너지절약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 특별회원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2월에 출시될 예정인 「컴퓨터를 이용한 조명 제어 시스템」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기술입니다. 특히 에너지절약과 전기안전에 획기적이어서 '베스트 중의 베스트'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회원시간에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역할 분담 같은 것도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이명용 사업본부장(에너지관리공단) : 제가 공단에 부임한 지 40여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ESCO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국제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에너지기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열렸던 고유가 대책회의 때도 공단으로서 할 수 있는 많은 요구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12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국가에너지절약회의 때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ESCO사업분야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곳에서 에너지절약 정책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므로 ESCO 여러분의 노력이 각별히 필요합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무언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공단에서 아파트 시범 ESCO 사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만 벌써부터 개별 ESCO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아파트에 접촉하는 사례가 있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자현 부회장 : 기업들이 모두 바쁜 상황입니다. 벌써 6년째 ESCO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처음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회원사들이 단

합해서 관련기관에 애로사항을 건의하면 더욱 ESCO들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ESCO업체가 신용대출을 받을 때 금융권의 금융부담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업체의 경우 공사를 제 때 끝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날짜에 대출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5.5%금리도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형 이사(금호전기) :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보니 ESCO협회의 무궁한 발전이 기대됩니다. ESCO사업을 진행하면서 의문점은 ESCO에 납품 이후 물품대금 처리문제가 세법상 미수채권으로 남고 금융권에는 장기차입금으로 남아 기업의 부채비율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요즘처럼 자산평가가 중요시되는 때에 자산평가에 부정적이어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 반적인 경우와 같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좌)이창순이사, (우)이영형이사

이창순 이사(동남아전설) : 저희는 올 1월에 발족한 회사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아파트에

ESCO사업을 시범적으로 펼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으로서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54개에 이르는 ESCO업체 중 회원사는 27개사에 불과합니다.

ESCO업체 전체가 동반자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80% 이상이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SCO

오늘의 간담회 내용을 비회원사에도 통보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석우 부장(삼성중공업) : 저희는 열병합발전 분야이기 때문에 ESCO사업 분야에서 너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른 분야도 생각 중입니다. 제안을 하나 하자면 ESCO의 각 부문을 특성화시켜서 그룹형식으로 협회를 운영 하였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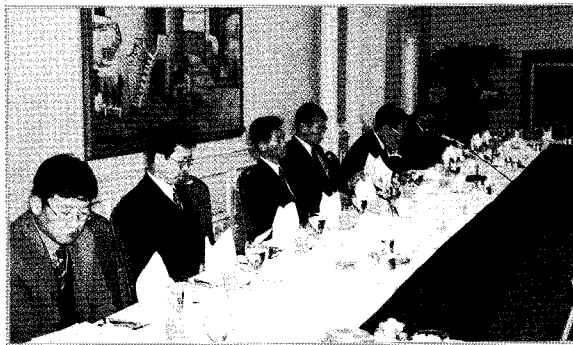
정부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ESCO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개발단계에서부터 이익이 되는 부문을 활성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옥 사업본부장(BTI) : ESCO는 '진단' 이 모든 성패를 좌우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기초적인 진단에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관리공단에 진단팀이 있지만 여기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각 개별회사 내에 1명씩이라도 진단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는 협회 내에 각 분야별로 진단전문가를 육성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조권상 이사(화인테크) : 협회에서 중소 회원사들을 위하여 각종 정보를 많이 제공하여 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집행된 ESCO자금은 561억 원으로 ESCO지원금에 대한 금액이 앞으로 100억 정도 예상돼 연말까지는 650억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원금이 내년도에 6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김영훈 단장(연방기연) : 저는 세 가지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ESCO사업에 접근할 때는 협회가 주체가 되어 중심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정부에서 잘해주고는 있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까지 ESCO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주면

좋겠습니다.

셋째, 회원사 상호간의 기술협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적 이윤추구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와 국가 에너지절약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으로 상호간 협력했으면 합니다.



유현자 부장(EP스코리아) : 전체 에너지의 30%를 절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ESCO 사업이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ESCO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소ESCO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명덕 이사(선호전지통신) : 기업의 최종목표는 이윤추구입니다. 그리고 기업체 내에서 ESCO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부서는 경영전략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담당자들이 ESCO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산업자원부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기업의 재무관리를 담당하는 전략팀들을 불러모아 ESCO가 무엇인지 설명해준다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영환 과장(대우) : 아시다시피 저희 대우는 현재의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ESCO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등록하고 기본적인 준비도 끝마쳤는데 여러분에게 폐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우 사태가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ESCO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ESCO협회나 ESCO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류기준 팀장(에너지관리공단) : 금리를 3% 이내로 낮추는 것, 동일지 한도 50억원 제한 등의 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내년도나 가야 풀리리라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된 ESCO자금은 561억원으로 ESCO지원금에 대한 금액이 앞으로 100억 정도 예상돼 연말까지는 650억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원금이 내년도에 6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최석근 회장: 협회의 입장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먼저, 대출금리 5.5%는 너무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제로로 해주든지 2%까지는 낮춰줘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가 에너지정책은 에너지다소비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동일지 투자한도를 50억으로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추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도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든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프로젝트와 소형프로젝트의 차별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중소ESCO를 위한 신용대출을 내실화 시켜야 하고 조세감면혜택도 현행 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는 대출금을 부채에서 제외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사업실적이 축적되고 확대될수록 ESCO의 채무비율이 높아져 기업신용도가 악화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에게도 문제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원자금의 대폭적인 증가시, 대기업 계열사 투자시 50% 한도제한을 철폐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지침을 조기에 확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매년 1월말에서 3월초에 확정됨으로써 ESCO들이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내년 3월까지 가면 기업은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전년도 11월말까지는 확정돼야 합니다.

협회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별화는 좋은 제안입니다. 현재 이사회만 열고 있는데 업종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협회 내 진단팀 구성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단비가 공사비에 청구되지 않는 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소회원사 활성화 대책으로 특별회원사와 연계한 컨소시엄 구성 등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는 회원사간 정보 및 기술교류를 위해 정보지를 발행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진단은 각 회원사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맡아 비용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필요 기자재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른 아침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너지정보센터

START

협업 열려라
한국에너지정보센터로 다시 돌아옵니다.

21세기 희망과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환경관련 종합매체를 표방하는 한국에너지정보센터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더욱 성실히 독자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에너지정보센터
출간: 열관리 · 축열식 ESCO · 출간: 모일러 · DesignPoint

한국에너지정보센터
KOREA ENERGY INFOR. CENTER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237-380 (영등포구)
간행물 출판사업부(02)679-6464(1기) / 사업부(02)632-4254
FAX(02)632-7566 E-Mail: k3m200@energycenter.co.kr